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10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63 호

수행과 원력이 큰 힘, 변화도 필요한 시점

9월 28일, '창종 50년, 종단 발전 좌담회' 개최



총무부장 원당 정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



사감원장 범경 정사

창종 50년을 맞아 종단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에 관한 토론이 '창종 50년, 종단 발전 좌담회'의 제하로 지난 9월 28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 사감원장 범경 정사, 총무부장 원당 정사 등이 참석해 평가와 발전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이날 간담회 참석 스승들은 진화국가불사를 위한 상·하반기 49일 불공과 매월 월초 불공 등 스승과 교도가 함께 삼밀육행을 실천하는 수행정진이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범경 정사는 "월초 불공과 49일 불공, 참회불공 등 1년 365일 중 3분의 2가 기도기간인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사부대중의 수행과 원력이 이 우리 종단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이다."고 평가했다.

또 종단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빠른 시

간 내 종단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특히, 종교인구와 종단 스승의 출가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스승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당 정사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상과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스승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주교 재량의 운영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인 정사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적잖다."라며 시대에 맞는 수행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자성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전 방식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진출을 위한 진학 등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공감했다.

또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종조의 가르침과 종단의 목적은 자비실천과 중생구제에 있다는 점에서 희사의 사회 환원도 종단이 계승하고 이어가야 할 정체성이라는 부분에도 의견이 오갔다.

인선 정사는 "종교라는 단체의 역할이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좌담회는 불교총지중 50년사발간위원회 주최로 BBS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윤금선 작가의 진행으로 열렸다.

좌담 내용은 본지 11월호(264호)와 오는 12월에 발간되는 50년사에 자세히 수록될 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사진=전서호 기자

'멸도절은 종조 법통이 계승된 날'

9월 8일, 제41주기 추선불사 봉행



총지사 원정 기념관(위)과 부산 정각사 서원당(아래)에서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제4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가 지난 9월 8일 총지사 원정 기념관과 전국 각 사원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원정 기념관에서는 종령 범공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서울경인교구 스승, 교도들은 종조의 진영에 향과 꽃을 올리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종령 범공 대종사는 범어를 통해 "창종 반세기가 흐르면서 원정 대성사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가르침과 법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전하고, "멸도절은 육신이 멸한 날이지만 법통이 계승된 날이며, 정진하는 길만이 종조의 열반을 진정으

로 추선하는 일"이라고 설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다."며, "창종 50년을 맞는 해로 대성사님의 진영이 올 초 새로 봉안이 되었고, 일대기가 오는 12월 15일 봉정을 앞두고 있어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원정 대성사는 1972년 12월 24일 종단을 창종하고 밀교의 대중화와 교화수행에 전력하다 1980년 9월 8일 입적했다.

알림

제157회 정기종의회 개최

일시 : 총기 50년 10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 불교총지중 통리원

종/조/법/어

기복은 작복보다는 못하고, 작복은 성불보다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본원은 성불이요, 여과는 복덕이라 하느니라.

지 면 안 내

5면 이달의 법문/행심원 전수
6면 기획연재/원정 대성사 일대기<2>
7면 생활법문/범경 정사의 불교란 무엇인가

총기 50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0년 10월 18일(월) 오후 1시

장소 _ 총지사 서원당

대상 _ 서울경인교구 스승 / 중앙종의회 의원

총기 50년

제97회 추계 강공회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현직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0년 10월 20일(수) ~ 21일(목)

장소 _ 경북 소노벨 청송

대상 _ 불교총지중 현직 스승



불교총지중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내 눈높이로 읽는 소의경전 <3>

대일경_주심품③

경전에 길이 있다

3. 법문의 이해를 돕는 사전지식
6) 반야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취보아 일체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 반야심경은 그야말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혜인 반야에 대한 법문입니다. 반야심경을 많은 분들이 관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무리(無理)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실재인 ‘법(法)’들을 무상과 무아적 견해로 관찰할 때 모든 법이 존재하는 모습, 공상(空相)은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이러한 공상(空相)으로 이해되기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고 죽는다는지, 더럽고 깨끗하다는지, 많고 적다는지 하는 것이 마음이 그려낸 것이며 실상은 오직 육문에서의 알(법法)만이 참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내용이 이러하기에 반야의 지혜가 없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외운다 한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마음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7) 당체법문(當體法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법신불의 당체설법으로 보며 이러한 설법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모든 존재들의 실상을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당체법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체법문도 지혜의 수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반야의 지혜가 없는 관념의 세계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법문을 관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법신 부처님의 예지(豫知)로 보고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이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이 법신불의 설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해석하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법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자의 마음이 탐진치 삼독심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탐진



승원 정사

치 삼독심에서 판단한 것은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에게 번뇌는 중생의 지혜를 능가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인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행은 초래하게 됩니다. 삼독심과 삼독심 없음, 번뇌와 번뇌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법문을 보는 것은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관념적인 자신의 판단이 자신을 더 인욕하고 하심(下心)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면 관념적이긴 하지만 행자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당체법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내게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실상은 여섯 감각기관에서의 알일 뿐이라는 반야의 지혜로 이해됩니다. 경험되는 모든 것이 관념을 벗어난 실제, 즉 법(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다 법신부처님의 당체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대일경 주심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 보리심이며 이 보리심이 일체지지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앞에서 실제하는 법을 여실하게 아는 자만이 반야의 당체법문을 열고 법신불의 당체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舉手動足 皆成密印
손과 발의 움직임이 모두 밀인이고
開口發聲 悉是眞言
 입을 열어 나는 소리 모두가 진언이라
起心動念 咸成妙觀
한 생각 이는 마음 일체가 묘관일세

종령 예하, 신임 종의회 의장·부의장에 임명장 수여

불교총지종 제13대 중앙종의회 첫 임시종의회가 지난 9월 7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종령 법공 예하는 종령실에서 신임 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와 종의회 부의장 서령 정사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후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동석한 가운데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제156회 임시 종의회에서는 괴산 중원사 서원당 내부 보수공사에 대해 원안 대로 의결하였으며, 오는 11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학교법인 관음학사 새 감사에 남해 정사를 선출했다.



교주 법신비로자나 불전을 향하여 맹세하나이다



“불의를 준봉 실천함으로써 종단의 발전과 전 세계 불자의 법익을 도모하고 전 세계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세 정화를 성취해야 할 종회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 전에 삼가 맹세 하나이다.”

불교총지종 제13대 중앙종의회 의원 선거식이 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신임 종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6회 임시종의회에 앞서 지난 9월 7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엄수되었다.

사진=전서호 기자

잠원햇살어린이집, 사회복지재단 재 수탁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 결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산하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원장: 김선희)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 결과 재단으로 5년 간 재위탁되었다.

서초구는 지난 9월 14일 2021년 제6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공고 제2021 - 1693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1일부터 재단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어온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오는 10월 31일 위탁 종료로 앞두고 서초구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서초구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 하는 우수보육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서울시 자연친화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등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9월 1일~ 10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부산불교방송 사옥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BBS 불교방송 제112차 이사회서 결의



BBS 불교방송이 부산불교방송 신 사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불교방송 사옥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재적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5일 개최된 BBS 불교방송 제112차 이사회에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매입 절차와

재원 조달 작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결의했다.

부산불교방송 사옥건립 추진위원회는 불교방송 재단 이사과 부산 BBS, 안국선원 관계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이달 등에 임기가 끝나는 장흥묘덕사 주지 종호 스님과 진각종 총무부장 능원 정사, 이한구, 엄상호, 정주교 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주)동원글로벌, 사회복지재단에 자비 회사

손세정 물티슈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

불자기업인 (주)동원글로벌 고정필 대표가 손세정 물티슈를 비롯한 코로나19 극복 방역 물품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에 회사했다.

지난 9월 30일 고 대표는 불교총지종 본산 소재 복지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한 트럭 분량의 물품을 이사원당 정사에게 전달하고, 산하 단체의 방역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물티슈 외에도 마스크, 건포 등 위생 방역을 위한 제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원당 정사는 “모두가 힘든 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서서 감사하다.”며, “재단 산하 시설 등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대표님 뜻대로 잘 사용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고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지역에 세정 알콜 함유 물티슈를 지원했으며, 불교계 제 단체와 연대하여 대구·경북시민 돕기에 나선 바 있다. 현재까지 천태종, 군종교구 및 불교단체 등에 꾸준히 자비 회사를 펼쳐오고 있으며, 이 같은 자비실천의 결과로 2020년 불교참여연대의 ‘올해의 불자상’을 수상 했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 원당 정사와 (주)동원글로벌 고정필 대표

내마음의 등불

법성사 법선 정사 편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바뀐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길에 배어 나오고, 길에 배어 나오면 길으로 드러나고, 길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中庸) 23장>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법성사 법선 정사님은 흥국사 서강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성주괴공(性住壞空)

지혜의눈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 유동(流動)의 세계

인류는 종족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 최적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사회(社會)란 말의 사(社)는 토지의 신을 가리키는 말로 곡식의 신인 직(稷)과 어울려 사직(社稷)이란 단어를 구성합니다. 인류가 어디에 있던 식량의 근원인 땅과 곡식의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었고 도시로 발전하고 마침내 국가를 창출하기에 이르렀지요. 그 과정에서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수많은 제도와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변(不變)의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끊임없이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영원한 제도와 사상은 존재하지 않았조. 한 국가와 사회도 이러한데 인간의 삶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원의 세계를 꿈꾸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등장하여 나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응집되어 영원한 존재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신(神)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의 전지전능함이 강조될수록 권력이 집중되고 영생(永生)을 꿈꾸게 됩니다. 한 편으로 현대사회는 다자녀를 둔 확대가족에서 하나 혹은 둘의 자녀와 부부로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는 과정에서 서로 정신적 신체적 접촉을 통해 얻어지는 감성의 경험이 부족한 오늘날의 세대들은 그러한 결핍을 반려동물과의 접촉으로 충족하려고 하지요. 때마침 IT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현실에 빠져 인간과 인간의 접촉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던 나이 든 세대와 달리 그런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젊은 세대가 오히려 신천지

와 같은 대규모 종교집회에 참석합니다. 동시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메타버스(meta-verse,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 같은 가상 현실에 빠져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런 모순된 행위의 심연에는 생로병사라는 존재적 불안이 깔려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는 현상은 20세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으로서의 1, 2차 세계대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시대를 보고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 유동(流動)의 세계이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가 연기(緣起)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세상을 환(幻)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나이 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불교적 수행에 적합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수행은 수많은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이기도 하기에 정서적 결합이 강한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자기주장이 뚜렷하지 않았습다. 젊은 세대는 출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혼술, 혼밥 등이 유행하는 현상에서 수행이라는 행위에 더 적합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지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 얻은 힘으로 많은 이들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과학이 밝혀놓은 우주에 대한 설명은 불교와 몹시 닮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수많은 다양성으로 꾸며진 세계이야어 전쟁과 착취와 굶주림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연명의료 39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죽음 준비의 구체적 방법

법상 정사

달라이라마도 매일 죽음 명상을 통해 죽음을 준비한다. 명상을 통해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죽은 뒤 화장하면 나는 어디 있는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

평소 죽음을 주제로 당사자와 가족 간의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일상 대화 주제로 삼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크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일상 대화 주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 간의 대화 통해 죽음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임종 방식을 가족에게 제시하고, 가족의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게 좋다. 가족 간에 대화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 세 가지는 죽음이 임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평소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죽음을 차분히 수용해야 한다

죽음을 왜 차분히 수용해야 하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를 평소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죽어 가는 사람의 임종 모습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누구나 슬퍼하게 마련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치유

를 향한 첫걸음은 이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임종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정적 흔들림을 서서히 추스르고 압박한 죽음을 차분히 직시해 수용하게 된다.

죽는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죽는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카르마에도 불구하고 다음 삶은 개선했을 수 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근심에 빠진 상태로 죽는다면, 우리가 그간의 삶을 잘 살았을지라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죽기 직전 지녔던 마지막 생각과 감정이 곧바로 이어질 미래의 행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유로 스승들은 죽어가는 순간의 분위기가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음을 수용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죽음을 수용하는 시점부터 죽음은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죽음에 순응하는 순간부터 영혼의 치유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갑자기 지금 죽음이 찾아오면,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는지 알 수 없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를지라도, 선뜻 일어설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죽음에 임했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가 여부에 따라 그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 될 수도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전 의료의향서’, ‘사전 장례의향서’를 미리 준비한다.

사전의료의향서만 준비하면 죽음 준비는 다한 것이고 좋은 죽음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전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죽음 준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셋째, 유서 작성, 유산문제만 유서에 작성하는 게 아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등을 작성해 매년 연말연시에 읽어보고 수정한다.

넷째, 사랑의 실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밝은 미소를 주위에 전파한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말에서 ‘잘’은 영혼의 성숙을 뜻한다. 영혼의 성숙이란 사랑의 실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우면서 사는 것이다.

다섯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명상을 생활화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가족의 수용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가족이 수용해야 한다. 임종 당사자가 수용했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이 그의 임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종 당사자가 편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전에 죽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서로 작별인사를 나눌 수 없다. 평소 일상에서 존엄한 죽음 준비, 죽음의 이해와 수용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에 임해,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이젠 떠나겠다.”, “편안히 떠나시라.” 작별인사를 나누고 다시 만나자고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심보이야기 23

법선 정사

제7식의 특징(2)

제7식은 사랑(思量)하는 작용을 한다.

식(識)이라는 말은 요별(了別) 또는 분별(分別)이라는 뜻 이외에 사랑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8식에는 모두 사랑의 뜻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유독 말나식에만 사랑의 뜻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말나식이 여타의 식보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말나(manas)라는 말은 곧 의(意)라는 뜻으로서 이를 의역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말나식은 사랑, 즉

고 싫지도 않다는 것에 대해 제7식 말나식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을 나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말나식은 그릇되게 인식,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제7식 말나식부터의 인간 심리 관찰을 보면, 불교에서 ‘마음’이란 단어의 분석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알려준다. 우리가 잠을 자며 꿈을 꿀 때의 마음, 대상이 없는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 깊이 사유하는 마음, 정신착

도독맞았다고 하자.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은 내겐 분명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 도둑에게 되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게서 훔친 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해서 그 기증받은 사람에게는 은인이 됐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나의 ‘확신’은 주관적 사건의 결과로 인식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 된다.

이와 같이 얼핏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나 꽤 수준이 높아 보이는

말나식은 사랑, 즉 헤아려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 판단의 근거, 최종적 마음은 제7식에서 우리나라와

헤아려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킨다.

예컨대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제5식인 신식(身識)이 촉감의 정보를 제6식으로 전달하면 제6식은 ‘아프다, 기분 나쁘다’라는 분별을 한다. 그러면 바로 제7식이 헤아려 활동을 한다. 누가 때렸지? 아니 저 자식이! 좋아 한판 붙어주지. 그리고는 코피가 터져라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게 된다. 아니면 ‘아이고, 센 놈이구나, 도망가자.’ 하고 도망치기도 한다. 이런 결정을 제7식이 사랑하는데, 제6식과 제7식의 활동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6식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가치중립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7식인 말나식이다. 이 식은 사랑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6식이 분별해 놓은 정보를 사랑하고 판단해 구체적인 행위를 결정한다. 즉 제6식이 분별하게 좋다거나 싫다거나, 아니면 좋지도 않

란이 일어나 제정신이 아닐 때의 마음 등은 어느 깊이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서양의 심리학 개념으로는 무의식, 잠재의식 정도이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어느 깊이까지 ‘침투’해 들어가는냐 하면, 대부분은 바로 이 제7식까지이다. 제7식을 ‘생각하고 헤아려 인식한다’는 사랑식(思量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바로 이 식을 통해 나오고 그 결과가 업이 돼 저장된다. 즉 인간의 거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최종적 마음이 제7식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옳다’, ‘그르다’라는 마음 자체를 일으키는 것을 아주 위험스럽게 여긴다. 어떤 경로나 어떤 이유든 작위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확신’하는 것을 번뇌의 주범으로 본다. 가령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것 같은 우리의 ‘의식’이 사실은 착오와 번뇌의 주범이라는 것이 유식학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상에서 보듯이 제7식 말나식은 대상을 그릇되게 인식함으로써 근본적인 번뇌를 야기하는 번뇌식(煩惱識)의 인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심식(心識)이기도 하다.

이래서 유식학에서는 제7식의 시비분별 작용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때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도 실은 제7식의 분별상(分別相)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란 곧 이 제7식을 제어하려는 데에 그 시작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에고’에 집착하는 인간이 어찌 귀한 ‘에고’를 죽이고 뿌리 뽑겠는가 하는 것이다. 참으로 간절하고 간절해 스스로를 길바닥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정도의 수행이 되어야만 미련 없이 제7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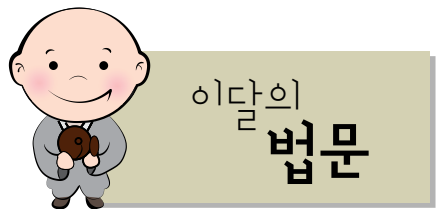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종교와 인생관

인생은 누구나 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생에 대한 태도결정을 인생관이라고 한다.

인생관은 인간 각자의 주체적인 것이므로 인간 개개인에 따라 형형색색이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그 인생관이 무자각 무반성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우의 일이다.

이러한 인생관은 비교적 무가치한 평범 내지는 저속한 것에 속한다.

인생관이 평범하고 저속한 것일 때 그러한 인생관에 입각하여 영위되는 인생이 무의의(無意義)한 것으로 끝맺게 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사려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가치한 자연적 인생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인생관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구하려고 한다.

철학과 종교에서는 모든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관능적 자연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지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되므로 철학적 종교적 인생관은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도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생관 형성의 법칙으로서서는 첫째 현실 파악, 둘째 생의 평가, 셋째 목적설정의 삼단계의 구조를 말한다.

즉 인간의 존재란 어떠한 것인가, 다음에 인간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첫째는 인생의 실존성의 문제요, 둘째는 가치성의 문제며, 셋째는 목적성의 문제인 것이다.

<종조법설집, 99쪽>

불교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입니다. 고(苦)를 떠나 락(樂)을 얻는 것, 즉 고통을 떠나 행복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은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문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까닭은 불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여기겠지만 사람은 종종 그 상식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고득락을 위하여, 행복 해탈을 위하여, 그 가르침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따르며 살고 있는지, 이 마음은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도구이며 행복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말씀은 진리로 받들며 외우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사유하는 시간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우리들의 삶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결정하는 요인,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신념, 태도, 가치관입니다.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목적이 되는 가치관이 뚜렷해야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행복이 아닐까요. 행복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겠지요.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정서, 좋은 느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더니 탐진치(貪瞋痴)가 사라져서 우리 가

로, 관점전환하여 바라볼 때의 느낌의 차이를 알아차려 봅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면 싯다르타 태자가 가지고 있던 강렬한 문제의식을 나의 것으로 느껴보고, 그의 간절한 원(願)을 나의 원으로 느껴보고 끝내 도달하고자 했던 어떤 궁극의 것을 지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부귀영화를 포기하며 얻

불교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 ‘이고득락(離苦得樂)’ 가치관이 뚜렷해야 바른 방향으로 우리 삶을 결정 행복과 해탈은 무아인 나, 일물(一物)이 창조하는 것

습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졌다면 그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 그것이 행복입니다. 좀 깊게 사유해 본다면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 해탈감이라 할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 모든 존재들의 상생의 행복 해탈에 깊게 머물러 사유해 봅니다.

존재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변화에 따라 가슴 속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해 봅니다.

‘나’라는 실체(實體)를 들고 있을 때와 그 ‘나’가 비실체적인 ‘무아(無我)’임을 이해하였을 때 내 가슴 속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섬세하게 느껴봅니다.

우리의 행, 불행의 알맹이인 이 느낌에 눈 뜨고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무궁한 것인가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관점의 전환으로 해탈의 느낌이 경험되는 것이며, 그리고 습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와 무아관의 정경정립으

고자 하였던 것에 다시금 깊게 머물러 봅니다. 고(苦)를 떠나 멸(滅)에 이른다. 그 고(苦)를 생각해 봅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이지요.

태어나고 죽는 인생 자체가 고통인 데다 그 고통 중에 애착하고, 미워하는 고통이 덧쌓이고, 애타게 갈구하나 끝내 손에 넣지 못하는 숙명 같은 욕구불만으로 그 고통들이 얹히고설켜 일파만파로 가지각색의 고통을 확대재생산 하는 무한 고통의 늪에서 습관적인 관점으로, 무반성적으로 살아가면 필히 억만의 고통으로 범벅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 이치이니 습관적인 관점으로 부터 기필코 벗어나겠다는 원을 더욱 간절히 세웁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고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가까운 내 마음에 극락을 찾자.

물건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자성불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 즉, 깨치기가 어렵지마는, 만약 생활 중에 있다고 안다면, 곧 능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극락이 서방 십만억 국토의 밖에 있다고 여긴다면, 죽은 후에나 왕생할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기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음을 알지니라. 현세가 극락인 즉 이것이 곧 가없는 고행에서 머리를 돌려 저 언덕을 바라보라고 한 비유인 것이다.

<종조법설집, 185쪽>

연기무아해탈.

연기동체대비의 기운이 충만된 무한 존재계가 드러난 그런 관점, 부처님께서는 연기라는 관점을 발견하시고 그대들도 이 지점에 와서 자신과 존재계를 바라보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계는 관점하나 바꾸면 그대로 무한히 열려있는 안팎으로 결릴 것이 없는 고(苦)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극락정토입니다.

법신불의 존재

법신불의 존재는 우주대기의 주인공이니 즉, 어떠한 특정 신의 의지로서 목적을 향해 천지를 생성시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다만 기계적으로 물리적 법칙 아래서 작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우주만유를 생성 화육하고 상호 조화하도록 하는 작용 즉, 무엇인가 크게 하

고 있으면서 한다고 고정된 주체도 없고 흔적도 없으며 또한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무한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조법설집, 242쪽>

이 세상은 연기 상생이라는 존재계 작동이치의 질서대로 무위법의 흐름임을 인식함으로 편안한 평화로움을 느껴봅니다.

일체유심조(一體有心造)

천하를 행복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행복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말, 불교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종조법설집, 220쪽>

외형은 내성을 닮아 난다. 즉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일체는 유심조다. 화복도 그 마음에 달렸다. <종조법설집, 239쪽>

원효대사의 해골통 이야기를 떠올려 보더라도 현실이란 나의 마음의 필터를 통해



행원심 전수

“

우리들의 존재계는 관점하나 바꾸면 그대로 무한히 열려있는 안팎으로 결릴 것이 없는 고(苦)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극락정토입니다

”

서 나타나는 색성향미촉법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모든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금강경』

한 생각에 지옥이요, 한 생각에 극락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아이며 무상이므로 그 어디에도 결림이 없는 공(空)의 관점으로 연기적 상생의 이치로 한 생각 전환하여 나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밀교의 구경성불

인간은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고 극락도 인간이 다 건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조법설집, 240쪽>

그러므로 행복도 해탈도 무아인 내가, 일물(一物, 우리의 주인공인 마음)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인생관’에 깊이 머물러 음미해 보면서 인생의 목적을 기준으로 닦아가는 삶이 궁극의 길임을 거듭 자각하면서 우리 모두의 행복 해탈을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제 1장 시절인연

탄생_②

고려가 망한 후 일직 손 씨들은 대부분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거나 자중하여 새 왕조에 복종하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은 것을 보면 곧은 길을 두고 굽은 길로 돌아가지 못한 대성사의 인품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강직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었다. 8세손 손조서(孫肇瑞)는 세종 때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거친 후 벼슬길에 나섰으나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이에 항의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

였다.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왜적에게 유린되자 손처눌(孫處訥)은 의병장으로 나서 팔공산에서 왜적과 싸워 이기고 대구를 지켜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직 손 씨들은 무과에 급제하여 무반으로 봉직하는 일이 잦았다. 조선의 양반 제도는 문반과 무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손 씨 가문은 독특하게도 문과에 6명의 급제자를 냈고, 무과에도 6명의 급제자를 냈다. 문무에 출중한 가문을 이룬 것이다.

특히 숙종대왕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정삼

품 첨지중추부사에 오른 손필억(孫必億)을 필두로 대성사의 조부인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 신광첨사 겸 병마첨절제사(通政大夫 神光僉事 兼 兵馬僉節制使) 손규현에 이르기까지 7대를 거쳐 9명의 병사(兵使)를 낳았다. 조선의 명망 높은 무반 집안으로 꼽히고 있다.

손 씨들의 위세는 대성사의 고향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밀양 해산서원(惠山書院)은 다죽리 죽서마을에 은거하던 일직 손 씨 다섯 선비를 지칭한 손씨 5현(五賢)을 받드는 서원이다. 다죽리 손 씨 일가가 학문에 게으르지 않고, 또한 문약함에 빠지지 않아 지혜와 무예를 함께 수련한 가문의 전통

으로 후손들을 지도하던 곳이다. 고종 시절 서원철폐령이 내려지자 서원의 간판을 내리고 철운재(徹雲齋) 현판을 걸었다.

죽서마을에 자리하였다 하여 서산고택(西山古宅)이란 편액도 달았다. 밀양에는 모두 11곳의 서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해산서원은 손 씨 가문의 번창과 더불어 크게 번성했다.

대성사의 조부는 오늘의 장관 직급에 해당하는 정삼품 벼슬에 올라 당상관으로 출세한 손규현(孫珪憲, 1842~1899)이다. 조선시대 벼슬길에 오르는 길은 과거뿐 아니라 음서제도(陰敍制度)가 있었고 그에 의해 관직을 얻은 이들을 음관(陰官)이라 불렀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 공과에 의해 추천을 받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가 음서제다. 소위 뼈대 있고 혈통 좋고 국가에 공

선전관은 평소 업무뿐 아니라 무예와 병법 훈련을 꺾이지 않아 승진에도 특전을 주는 직위인데, 고종이 왕위에 오른 해 훈련원 선전관으로 임명된 것은 무예의 자질이나 성품을 인정받은 것이다.

손규현은 1870년에는 웅천 현감으로 나가게 된다. 웅천현은 지금의 진해 창원 지역 일대이고 예나 지금이나 남해안의 군사전략 상 요충지로 꼽힌다. 고향인 밀양과도 그다지 멀지 않아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과 중앙 관서 간에 오고 간 공문서는 「각사등록(各司謄錄)」이란 문

1864년 승정원 일기, 대성사 조부 손규현 선전관 임명 대성사의 영명함과 고귀함, 조부 성품 가장 많이 닮아

적을 세운 관료의 자손 중에서 음관으로 추천 받을 수 있으니 15명의 음관을 배출한 일직 손 씨 가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성사의 성품은 조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전한다.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을 마무리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성격은 할아버지의 것을 빼닮았다고 한다.

대성사의 조부는 20세 초반에 훈련원에서 무관으로 벼슬을 시작하였고, 공직 기간 중 빠른 출세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왕의 지시사항과 행정 사무 처리를 기록한 승정원일기 1864년의 기사에 대성사의 조부를 선전관으로 임명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었다. 무관에 등과한 지 2년 만의 일이니 승진도 무척 빠른 편이다.

선전관은 왕을 지적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여 주요직으로 간주 됐다. 또 무반 중에서 후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로 임명했고, 무술의 재능이 뛰어나고 용기가 담대한 이들을 주로 뽑는 자리였다.

헌에 남아있다. 그 안에 경상도 지역 삼도통제사 신정이 지방 관서장의 인사평가를 왕에게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인 1870년의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에 웅천 현감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다.

“웅천 현감 손규현은 그 영명함이 간혹한 계략을 살피는 데서 드러났고 그 고귀함은 사전에 대비하는 데서 고귀해졌다. 상(熊川縣監 孫珪憲, 明著察奸, 勤貴備虞, 上)”

현감의 성품과 근무 태도를 영명함과 고귀함으로 표현하였으니, 문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찬이다. 아마도 현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송사의 잘잘못을 잘 가려내고 군사로써 방비를 잘 갖추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성사가 조부를 고스란히 닮았다는 이야기는 이 같은 평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영명함과 고귀함, 후일 교단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데 그 성품이 빛을 발한 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료사진=해산서원

2022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2022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 학교	비고
수학	1	동해중학교	
합계	1		

2. 응시원서 접수[※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21. 10. 25.(월) 09:00 ~ 10. 29.(금) 18:00 【5일간】

※ 공·사립 동시지원자는 (불임)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안내참조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021. 10. 15.(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새소식/고시/공고) 「2022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전형 방법

가. 추진방법(1차 + 2차 시험 일부 교육청 위탁)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및 2차 시험 중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에 위탁 전형하며, 제2차 면접시험은 본 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은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합니다.

나. 시험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2021. 10. 15.(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끝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1. 불교란 무엇인가

부산 정각사 주교 법경 정사가 BBS 부산불교방송 프로그램 「수요법문」(매주 수요일 17시 40분~18시 방송)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생활법문을 진행 중이다. 본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법경 정사의 방송 내용을 지면으로 옮겨 13회에 걸쳐 소개한다. 방송은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http://www.busanbbs.co.kr>)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불교(佛敎)란 글자 그대로 부처님(佛)의 가르침(敎)을 뜻합니다. 불(佛)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으로, 산스크리트의 붓다(Buddha)라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입니다. 이를 음사(音寫), 음역(音譯)이라 합니다. 그래서 붓다를 불타(佛陀)라고 부르고 한자로도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불타를 줄여서 불(佛)이라고도 합니다. 불(佛)을 부처라고 말합니다. 부처는 붓다, 또는 불타를 우리말로써 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존칭을 나타내는 접미사를 '님'자를 붙여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처, 붓다, 불타의 뜻은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교(敎)'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을 가리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으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자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듣고 배우고 닦아서 실천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곧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가르치신 교설, 가르침에 대해 배우고 닦고 행하는, 즉 실천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주 삼라만상, 즉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자각,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불교에서는 일체(一切)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일체는 산스크리트어로 sarva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법(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를 제법(諸法)이라고도 합니다. 삼법인(三法印) 가운데 하나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제법(諸法)이 바로 일체(一切)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내용은 무

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緣起)'의 진리입니다. 연기는 인(因)과 연(緣)이 화합(和合)하여서 일어난다(起)는 뜻으로,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줄임말입니다. 즉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써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의 법칙이 바로 연기성(緣起性)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신 것입니다. 즉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의 존재와 실체를 여실하게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크게 3가지의 명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성질과 속성

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셋째는 일체 존재는 '어떤 법칙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의 진리를 설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체 존재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설하셨는데, 이를 '수행교설'이라 하고, 세상 이치에 대한 말씀을 근본교설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교설입니다. 여기에는 사대설(四大說)·오온설(五蘊說)·십이처설(十二處說) 등의 교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체의 구조를 설하신 이유는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상계승(無常偈頌)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뼈와 터럭과 살은 다 땅에 돌아가고, 피와 땀과 진액은 다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움직이는 힘은 바람에 돌아가서, 사대

(四大)가 각각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 역시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일체 존재는 어떤 성질,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설로는 삼법인설(三法印說)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의 요체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인데,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뭇하러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착마저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체는 어떤 법칙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교설로서 일체 존재의 법칙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일체 존재의 법칙성은 바로 연기(緣起)로써 존재한다는 교설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닦아서 실천하는 종교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른 수행 통해야 삶이 더욱 윤택해져



곧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 즉 연기(緣起)로써 변한다, 연기로써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므로,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인은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생멸변화는 끝없이 펼쳐집니다. 즉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

이나 슬픔, 괴로움과 고통, 근심과 걱정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비롯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말씀은 한낱 경전의 책장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삶과 일상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사구계(四句偈)가 바로 연기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연기의 진리 속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과 대립,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잠시 머물러 있을 뿐,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 고통마저도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헤쳐나오질 못합니다. 어제의 슬픔에 오늘까지도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슬픔과 고민도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 속에서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객관화하고 최소화해서 티끌로 날려 보내야 합니다. 기쁨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바른 수행을 통해서 삶이 더욱 윤택해집니다. 그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 교설의 진리를 배우고 닦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요, 올바른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무상의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이 지나가서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는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저의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녹음(錄音)되어 전해지고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삭제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스스로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무상과 무아라는 진리 속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무상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성불하십시오.

한글창제 제575돌 기념 BTN불교TV 특집 프로그램



영화 '나랏말싸미'
10월 8일(금) 오전 7시 30분 / 저녁 7시
10월 9일(토) 오전 9시 / 저녁 8시 30분



고인사이드
조철현 (나랏말싸미 감독)편 2부작
1부 10월 6일(수) 오전 9시 / 10월 7일(목) 오전 9시
10월 8일(금) 낮 12시 / 10월 9일(토) 낮 12시
2부 10월 6일(수) 낮 12시 / 10월 7일(목) 낮 12시
10월 8일(금) 밤 9시 30분 / 10월 9일(토) 밤 11시

토크멘터리 '한글' - '나랏말싸미는 역사왜곡인가?'

- 1편 <"불교는 한글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0월 5일(화) 오전 7시 30분 / 저녁 7시
- 2편 <"세종은 왜 유교경전이 아닌 불교경전부터 한글로 옮겼을까?">
10월 6일(수) 오전 7시 30분 / 저녁 7시
- 3편 <"한글의 보급과 전파에 끼친 불교의 영향">
10월 7일(목) 오전 7시 30분 / 저녁 7시
- 4편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10월 9일(토) 오전 7시 30분 / 저녁 7시



<특집다큐>
한글, 다시 태어나다
10월 7일(목) 밤 10시 30분
10월 8일(금) 오후 3시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와 신비주의 ②

오자엄신관에서 아바라하카(a, va, ra, ha, kha)의 다섯 글자는 다섯 가지 색채와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오대(五大, 지·수·화·풍·공)를 나타내며,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이 차례로 행자의 신체 다섯 곳에 관상 속에서 포치된다.

이들의 상호 관계를 그림과 표(아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일경』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조합이, 한꺼번에 한 품에 설파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수화풍공의 5대를 나타내는 오륜의 신체에서의 위치는 「비밀

만다라품(秘密曼荼羅品)」에, a, va, ra, ha, kha의 다섯 글자의 색은 「실지출현품(悉地出現品)」에, 다섯 글자 각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사리진실지품(阿闍梨眞實智品)」에, 다섯 글자가 상징하는 내용은 「입만다라구연진언품(入漫荼羅具緣眞言品)」에 각기 별개의 품에서 설파되며, 다소 정리된 관법으로는 한역 제7권인 「지론법칙품(持論法則品)」 제4에 나타난다.

다만 그 다섯 종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일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대일경소』 제14에 나타나 있다.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

요컨대 『대일경』의 입아아입관 중 하나인 오자엄신관은 오자(五字), 오륜(五輪), 오색(五色), 오형(五形)이라는 관계로 대우주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행자 신체의 다섯 곳에 포치됨으로써 행자와 본존의 본질적 동일성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일경』의 「백자위성

품(百字位成品)」은 행자의 신체(身體)도 본존의 신체도 모두 자성으로서 공(空)이며 연기생(緣起生)이라고 설파하며, 거기에서 입아아입관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사지염송(四支念誦)

단편적인 기술이 보이는 『대일경』 『금강정경(金剛頂髻)판트라』의 유타라판트라(Uttaratantra)에 해당하는 「상선정품(上禪定

품(悉地出現品)」, 「동공양법(同供養法)」의 「지송법칙품(持誦法則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 『대일경』의 「설본존삼매품(說本尊三昧品)」에는 종삼존이자인형(字印形)의 삼종신(三種身)으로 나타나 있고, 이 삼종이 각각 둘로 나뉘어져(二分) 6종으로 되어 있다.

이 자인형의 삼종신은 『상선정품광석(上禪定品廣釋)』에서 설명한 바 육종본존(六種本尊), 즉

주석서에 따르면 전혀 다른 관법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대일경』에서 사지염송은 「세간성취품」「실지출현품」「지송법칙품」등으로 설파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본존과 행자의 입아아입관을 위한 좋은 관법은 아니다.

본존과 행자와의 상즉상입이 끝난 후에 이 염송이 진행된다.

즉 본존의 신(身)에 월륜을, 또

대해서도 언급한다.

즉 염송의 소리(聲)로만 집약된 것에서 소리와 문자를 나누고 이어 문자를 그것이 일체화된 월륜에서 떼어내고 다시 월륜과 본존의 신(身)을 구별하여 마지막으로 본존의 신(身)과 행자의 신(身)을 분리하여 행자의 신체를 쉬게한다. 즉 입아아입관의 과정의 역을 행하여 그것을 푸는 관법이다.

「상선정품」에서는 다시 화(火)

오자엄신관, 지·수·화·풍·공 다섯 가지 색채와 형태 취해
본존과 행자와의 상즉상입이 끝난 후 사지염송이 진행돼

품)」 및 그 주석서에 따라 단지 그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지염송(四支念誦)은 「상선정품」에서 성(聲, 문자), 심(心, 월륜), 여래의 근거, 자기의 근거의 사지(四支)로 나뉜다. 이 사지염송의 유형은 『대일경』의 「세간성취품(世間成就品)」 및 「실지출현

승의(勝義)의 삼마지(三摩地), 성(聲), 문자, 인(印), 모습(姿), 속어(俗語) 삼마지와 함께 염송의 사지(四支)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지염송의 관법은 각 품에 따라, 심지어 동일한 곳이라도 한역과 티베트역에서는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각각의

그 월륜 중에 문자를 관하고, 그것들이 염송의 소리(聲)에 집약되고, 호흡과 함께 그 소리(聲)가 본존과 행자 사이에 출입하는 염송법을 서술한다.

상선정품(上禪定品)

『상선정품광석』에 의하면 행자는 스스로 문자(文字), 월륜, 본존의 삼지를 동시에 관하고, 입아아입관 가운데서 자신의 가슴(胸)의 월륜과 진언의 문자인 만(鬘)의 이지(二支) 속에 본존을 봉안하고 마지막으로 진언의 소리(聲)만을 관법한다.

여기에는 입아아입관이 완성된 후 본존도 행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소리(聲)만 출입하는 염송법이 설파되어 있다.

이러한 염송을 계속하다가 피로해지면 휴식을 위한 역관(逆觀)에

에 주(住)하는 선정, 성(聲)에 주하는 선정과 나아가 성제(聲際)에서 해탈을 주는 선정에서, 성(聲)조차 버리고 무성(無聲)으로, 범신의 자성에 주(住)하면서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법은 소작판트라인 「상선정품」에는 단지 구조(構格)만 설파되어 있을 뿐, 관법차제로서는 행과 유가 양 판트라로도 통하는 붓다그히야의 주석서에 의할 수밖에 없다.

붓다그히야의 주석서를 통해 보는 사지염송은 단순히 외적인 사작법(事作法)만 설파할 뿐 아니라, 행과 유가의 양 판트라 관법을 포함한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즉 본존과 행자와의 유가, 입아아입관을 완성한 후의 염송법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인정된다.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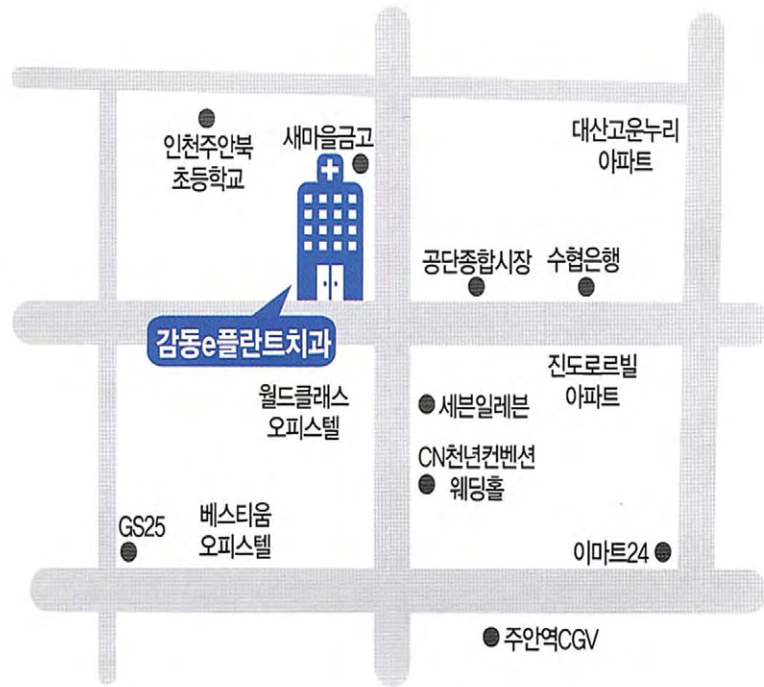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위대한 쯡카빠 룡상 닥빠 (下)

쯡카빠의 인생을 크게 나눈다면 전반기는 현교와 밀교를 섭렵한 수학의 시대였지만 후반기는 밀교수행에 몰두하고 당대의 역작들을 펴친 저술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쯡카빠는 무작보살이나 많은 밀교수행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중관의 조사나 밀교본존들과의 시공을 초월한 교감을 통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명작들을 남겼다.

쯡카빠는 1402년 46세가 되었을 때 라덴사원에 머무는 동안 역대의 명작인 『보리도차제론』(람림, Lam rim)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아미샤의 『보리도등론』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석가모니 붓다가 설한 인도불교의 핵심적 가르침들을 요약하고 불교수행의 실용적 실천체계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보리도차제론』 이후 아미샤의 까답빠의 전통은 쯡카빠의 겔룩빠(dge lugs pa) 전통에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쯡카빠는 자신이 전개하는 공성의 이론이 후대 학자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다는 생각으로 『보리도

차제론』의 집필을 주저했지만 문수보살은 계속하라고 용기를 주었다. 1405년 쯡카빠는 남제맹사원으로 옮겨 우기 동안 스승인 렌다와와 깡끈빨상보를 모신 가운데 대중들에게 계율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강의하였다. 이어 1407년 전후해 중관과 논리학에 대한 중요한 저술들을 진행하였고, 1415년 『보리도차제론』의 중본과 약분을 저술하였다.

현교와 더불어 『보리도차제론』에 비견하는 쯡카빠의 역작은 『비밀도차제론』이다. 1405년 저술을 완성한 『비밀도차제론』은 밀교를 크게 소작부·행부·유가부·무상유가부로 나누고 4부 밀교에 대한 주요 문헌들을 주려 주석을 시도하였다.

『보리도차제론』과 『비밀도차제론』이야말로 인류사에 기록될 소중한 명저라 아니할 수 없다. 쯡카빠의 다른 밀교저술은 후기중관의 교학을 밀교수행으로 전개시킨 후기밀교의 『비밀집회판뜨라』에 대한 주석들이다. 『비밀집회판뜨라』는 석가모니붓다의 연기관을 밀교수행으로 전개시킨 후기밀교 경전으로

연기관의 순관과 역관은 각각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으로 정비되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쯡카바는 『비밀집회판뜨라』의 주석과 성취법들에 대해 1401년부터 재주석을 집필하여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겔룩빠 이외에 다른 티베트의 종파들도 쯡카빠의 저술들을 깊이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쯡카빠의 명성이 주변에 알려지자 1408년 명황제는 쯡카빠를 남경에 초청하였으나 쯡카빠는 거절하였다. 1413년 두 번째 초청했을 때 쯡카빠는 대신 제자인 샤까예세를 보냈다. 샤까예세는 중국 방문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황제는 많은 보물을 보내 이를 기반으로 1419년 세라사원이 건립되었다. 1424년 황제가 죽자 샤까예세는 중국에 조문차 방문하였는데 이때 이루어진 티벳불교와 중국황제간의 유대는 계속 지속되어 청조의 최후인 1911년까지 이어졌다.

쯡카빠로 인한 티벳사회의 변화는 1409년 수도 라사에 뮌람첸모, 즉 정초마다 대기원법회를 여는 것이

었다. 뮌람은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고찰인 조캉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석가모니불상의 조성을 위해 많은 보물들이 전시되었다.

이어 간헐사원을 건립하여 1415년에 완성하였고, 1417년 밀교의 구히야사마자, 와즈라바이라와, 차끄라상와라의 주요본존들이 안치되었다. 그리고 쯡카빠 자신이 제1대 좌주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간헐티빠로 알려진 좌주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쯡카빠는 1418년 마지막저술인 『중관밀의해명』이라는 책을 완성한 다음 해 1419년 세수 62세에 입적하였다. 쯡카빠는 후계자로 겔잡제 달마린첸(1364-1432)을 지목하였고, 다음은 케둑제 겔렉빨상(1385-1438)이 간헐티빠가 되었다. 위에 열거한 제자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겔된돌(1391-1474)은 초대 달라이라마로 유명하고, 잠양최제파쇼빨덴은 데룽사원을 건립하여 세라사원, 간헐사원과 함께 겔룩빠의 3대 사원이 되게 하였다.

티벳불교를 동아시아불교의 종파와 비교할 때 동아시아불교는 주로 전래된 불전을 기준으로 종파불교가 등장했지만, 인도불교와 티벳불교는 인도에 형성된 삼장 전체를 연구문헌으로 삼고, 인도의 유부, 경량



쯡카빠와 겔잡제, 케둑제(위) 조캉사원석가모니본존불(아래)

부, 유식, 중관학파의 학파가 형성되거나, 지역과 조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는 화엄종과 천태종의 교상논쟁이 치열했지만, 티벳불교에서는 둘다, 즉 ‘궁극적 중의’를 따지는 논쟁이 주요 과목이다. 불교는 교학이나 수행체계 모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체계 가운데 시대나 지역별로 인연 따라 종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젠가 한국불교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인도, 티벳불교의 전통처럼 삼장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삼 도둑의 용서와 보은 이야기

훈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을 둔 박 씨 성을 가진 나무꾼이 있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시집을 꼭 보내려 했는데 또 한해가 속절없이 흘러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니 박 씨는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딸의 훈기를 놓친 것은 따지고 보면 딸의 탓이 아니라 가난 탓이었다. 일 년 열두 달 명절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서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착한 박 씨는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 같지 않아서 나뭇짐 뭉치도 점점 작아져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 평평 내리던 날 그는 지게에 도끼와 톱을 얹고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헤매던 박 씨는 힘이 들어 쉬고 있었다. 이때 새하얀 눈 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닌가? 박 씨는 기쁨에 겨워 산삼을 캐보니 무려

120년이나 된 동자삼이었다. 박 씨가 120년이나 된 산삼 한 뿌리를 캐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저잣거리의 약재상이 찾아왔다.

“박 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천석꾼 부자 황 참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 씨는 이끼로 썩 산삼을 보자기에 써서 약재상을 따라 저잣거리 주막으로 갔다. 황 참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박 씨를 기다리고 주막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박 씨



시인, (사)바보클럽운영위원장, 前동해중 교장 탁상달

가 보자기를 풀자 120년생 동자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120년 묵은 동자삼을 한 노름꾼이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어 대는 것이 아닌가? 주막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 참봉의 수하들이 산삼 도둑의 목살을 잡

아서 들어 올려보니, 폐병으로 골록 골록하는 노름꾼 허골이었다. 제대로 놀음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술 심부름이나 하고 고리나 뜯는 집도 절도 없는 젊은 놈팡이 허골은 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당나발처럼 부어오른 채 황 참봉 수하들에 의해 방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황 참봉의 일갈에 허골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박 씨가 나섰다. “참봉어른, 아직까지 허골의 배 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저의 것입니다. 이놈의 배를 찢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데려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박 씨의 말이 맞아 황 참

봉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허골을 데리고 나와 언덕마루에서 그를 풀어주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씨는 막걸리한 사발을 들이키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에 시집보내려 했는데, 배를 찢을 산삼이 멸절할까. 내 팔자에 무슨 그런 복이…”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 씨가 나뭇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와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녀죽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소인 허골입니다.” 허골이 삼장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간데없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골은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돼 마포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던 것이다.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골과 박 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박 씨는 더이상 나무지게를 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저잣거리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거느리며 살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서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섭리인가 봅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앞만 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고요의 시간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음미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시간도 가져보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친구를 위해 단문이나마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보는 것도 사람의 향기가 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처럼 부모 사랑을 뜻합니다

구입방법:소핑몰 benein.com /



Ch 배내인

카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유통상담환영/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마음속 옴마니반메흠, 붓 끝으로 대일여래

포항 수인사 이명희 교도 민화 초대 작가로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민화 속의 꽃과 새, 여러 가지 사물에 담긴 지혜와 소망을 함께 붓을 잡으면 모든 번뇌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에 집중하며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정진하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포항 수인사 교도 심홍 이명희 민화 작가가 지난 8월 24일 포항·POSCO불빛미술대전에서 민화 부문 초대작가로 지정되면서 경상북도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을 포함하여 경북의 대표적인 3대 미술 공모전에서 모두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하는 명예를 얻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총지종에 입교한 지 40여년 간 신심 깊은 교도로 신행 생활을 이어오면서 20년 간 민화인으로서는 지내온 세월의 결실이다.

지난 2000년 봄 영남권 민화를 대표하는 이정옥 작가를 찾아가 제자로서 민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민화를 시작하며 2007년부터 매년 경북 지역에서 열리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기량을 꾸준히 쌓아왔다. 지난 2018년 추천작가로서 3회 이상 공모전에 참가해 꾸준한 작품을 선보인 이 작가는 드디어 올해 그토록 바랐던 초대작가가 되었다.



수인사 이명희 교도

“제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개인전을 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어요. 요즘 현대 민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전통 민화 작품을 계속하고 싶어요. 민화는 우리가 아끼고 계승해야 될 민족의 자산이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항 오천복지관과 경주 강동복지관에서 민화 강사로서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후배 작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수인사에서 민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었다.

전서호 기자



이명희 작가 2020년 작, 응도 (독수리)

정각사 추석 합동 차례 법회 봉행



부산 정각사(주교: 법경 정사)에서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1일 교도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득락전에서 합동 차례 법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은 선망 조상들의 음덕에 감사하며 향을 사르고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종립 동해중, 청렴 소통·공감의 날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는 ‘청렴 소통·공감의 날’ 행사로 교직원 탁구대회를 열었다. 송인근 교장은 “스스로 소통으로 마음을 열어 청렴한 교육을 구현하는 일이 교직자들의 소명이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총/지/문/답 ⑬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참회서원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로 탐진치에 연유하여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라 일체를 내가 이제 참회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가 이루어지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회는 서원과 계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염송의계에 들어가면 금강합장을 하며, 가장 먼저 반드시 ‘참회 서원’을 합니다. 참회는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정진 수행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참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참는 것이고, ‘회’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과 보살님 또는 스승과 윗분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숙세의 업장을 멸할 뿐만 아니라 현세의 서원도 능히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대상사 일대기

9월 설판재사

故 청암 정사	일성혜 전수	정정심 전수
인선 정사	범수연 전수	록경 정사
정계월 전수	묘홍 전수	

강재옥	무량수	이귀선
공재호	박근진	이서아
관득	박동규	이성우
권길	박성현	이종미
길광원	박영	이태호
길기연	박찬휘	장정순
길기현	박필남	전화자
김나현	손석현	조영수
김서현	손원락	조영우
김재동	손정우	조영호
김정환	손현경	조창환
김진	우귀연	하명순
김진영	이경화	한혜수

-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열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 15 (해대원동)	(031)751-8685	제석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부산,경남교구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055)354-3387	
충청,전라교구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법화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법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

고려시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한국 밀교를 이 땅에 다시 꽃피우게 하신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1907~1980)의 일대기가
최초로 책으로 출간됩니다.

한 시대를 치열히 살아간 밀교 수행자이자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종교적으로 구제하려한 선각자 원정 대성사.
밀교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리셨으며,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어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대비원력(大悲願力)으로
1972년 불교총지종을 세우셨습니다.

금번 일대기는 말법시대 밀법으로 수행의 근본을 세운 원정대성사의 삶을 통해,
현대 한국 밀교 태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총지종의 종지와 수행법, 밀교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창종 50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교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대성사님의 일대기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원정 대성사님의 삶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전법의 역사를 길이 전할 역사적인 출간을 알리며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어내는 소중한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를 시작합니다.

한권 동참금 1만원(동참자는 책 뒷면 명단 수록 및 일대기 출판 후 자택 배송)

설 판 기 간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 참 방 법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240942 예금주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불사 동참 후 성명과 주소를 일대기 담당자(☎ 070-5178-0215~7) 앞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설판(設辦) 이란?

설판(設辦)의 설(說)은 설법회, 불사(佛事)의 모임을 말합니다. 판(辦)은 '힘쓰다, 주관하다'라는 의미로 불사의 중요하고도 큰 부분을 맡아 신심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설판재자(設辦齋者)란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담당하여 애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설판공덕은 부처님의 일을 완성하는 불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법회를 원만성취하도록 하는 공덕이므로 불보살님의 감화력이 모든 중생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하며, 결과적으로 내 작은 정성의 힘이 못 중생을 제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설판재자는 바로 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